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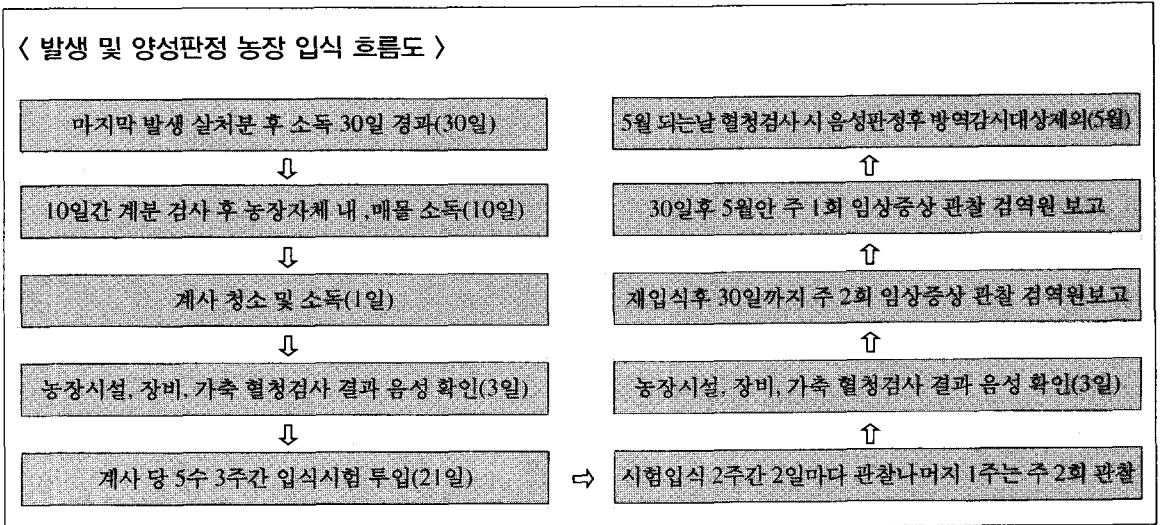
닭 입식, HPAI 재발 위험 충분히 고려되어야...

◇ 취재 / 김종준 과장/기자
(jjun@poultry.or.kr)

1. 입식시험요령

1) 발생농장 및 예방 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 농장
HPAI가 발생한 농장과 예방 살처분한 농가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후 계분을 농장내 매몰하는 경우는 30일, 외부에 계분 판매는 60일 이후 계분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다음 입식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가에서는 중추 입식 전에 계사를 깔끔하게 청소 및 소독하고, 시험사육 대상 중추의 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시험사육이 시작된다. 계사별 산란계 중추(6~12주) 5수 이상을 입식시험에 투입하게 되는데 시험기간은 3주간에 이루어진다. 시험사육 기간중 발생 농장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하고, 산란계 농장도 케이지 내 시험사육을 금지하였다.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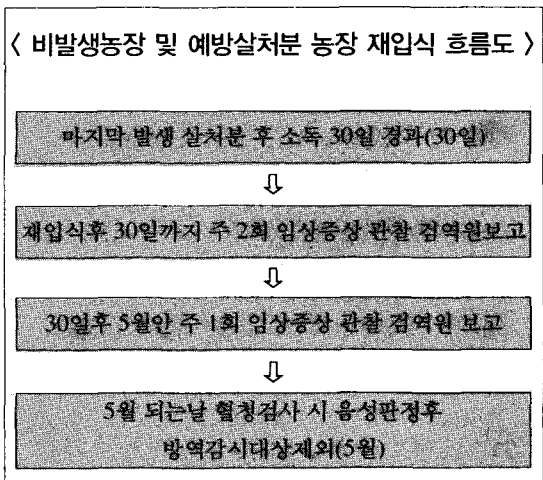


(외부로 계분을 판매시에는 살처분을 마친후 60일이 경과후 10일간 계분검사를 한 후 입식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할 축산위생연구소 및 가축방역기관 수의사는 농가에서 중추 입식 후 2주까지는 2일마다 나머지 1주간은 주 2회 임상관찰을 한다. 입식 후 3주 경과 뒤 혈청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재입식이 허용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김도순 계장은 시험사육에는 닭과 오리 농장 모두 5주에서 12주 사이 닭을 시험사육하여 감수성을 체크하게 되므로 육계, 토종닭, 종계, 산란계의 용도별 닭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반드시 시험사육에 사용되는 닭은 5수 이상 되어야 하나 산란계라도 케이지에 사육하지 말고 바닥에서 사육해야 사육시험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농가는 재입식이 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에 의하여 30일간 주 2회 임상증상 관찰 결과를 검역원에 보고하고, 이상이 없을 때 30일 이후 5월 안에 주 1회에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나타내면 5월이 되는 날에 방역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비발생농장 및 예방 살처분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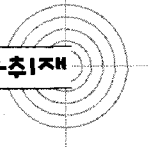
HPAI 발생 인근 지역에 위치한 농장으로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한 비발생 농장은 살처분을 실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 재입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생농장 인근 500m 이내(오염지역) 예방 살처분 농가는 발생농장 입식시험 완료 후 재입식을 허용하게 된다.

2. 지역별 입식농가 실태

1) 경상도

경상도는 양산시, 경주시, 울산광역시의 산란계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양산 지역은 닭 살처분 대상이 140만수로 지난 2월 중반까지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최종 살처분한 농가를 기준할 때 양산지역의 3월 중반이면 이동제한이 해제되어야 하나 계분 검사 및 역학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동제한 해제 시일도 늦어진다는 것이 농가들의 의견이다. 그래서 입식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는 4월부터, 입식시험을 실시하는 농가는 5월쯤이면 최초 입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농가 의견이 많다. 양산지역은 월 30만수씩 8월까지 입식이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반면 경주시 산란계 농가들은 4월이면 재입식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다. 경주시 안강읍의 권영택 사장은 지난해 12월 살처분을 끝내고 3월 15일 현재 4만수 규모 계사에 30수를 넣고 입식사육을 하고 있으며 24일 혈청검사 후 가금인플루엔자 음성으로 판정되면 4월초 재입식할 예정이다.



2) 충청도

충북 음성지역은 1월 18일에 이동제한이 풀려 입식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동제한이 풀린 후에 육계를 입식하여 한번 출하한 농가가 있다. 이렇게 빠르게 재입식이 가능했던 것은 C계열사들이 나름대로 입식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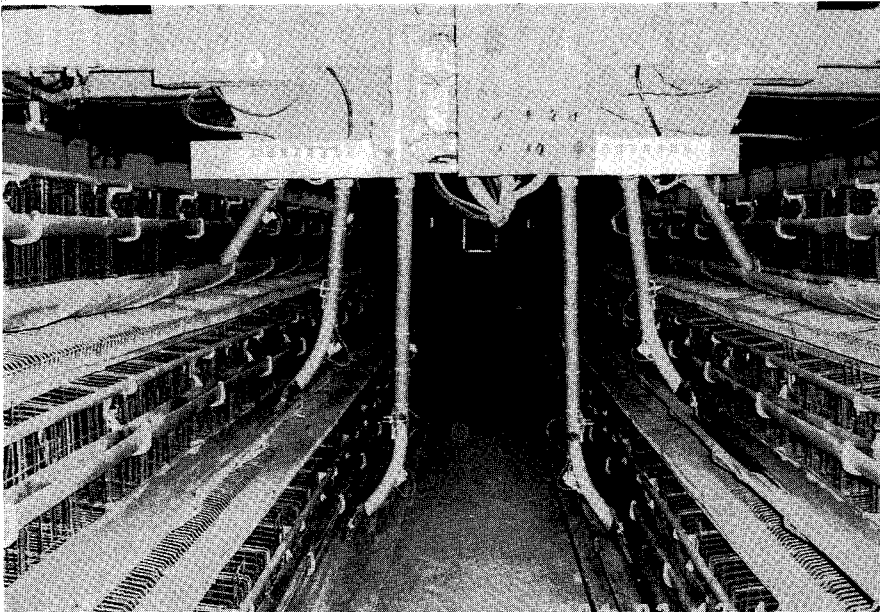
충북 음성 삼성 S사장은 3월 12일 현재까지 소독마저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근 500m 이내 L사장은 청소와 소독을 마치고 계분까지 매물하였지만 S 사장의 입식 시험이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입식은 3주 이상 걸린 것으로 보인다. L사장은 98년 축발기금을 이용하여 계사 3동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상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 이래저래 부채만 늘어나게 되었다.

3월 11일 천안시 북면 운용리 박병준씨 중오

리농장을 중심으로 30~40km 특별관리지역(천안, 아산 전지역 및 연기, 예산, 공주, 당진 일부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어 3월말이면 일반농가 입식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충남 천안시 풍세면 단지 농가중 5개 농가가 양성판정을 받았으므로 재입식 보다 시험사육 준비에 분주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와 더불어 단지내 가송리 8개 농가와 남갈리 9개 등 19개 농가들을 양성 농가와 똑같이 계분처리와 입식시험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실제 재입식까지는 4월말이나 5월초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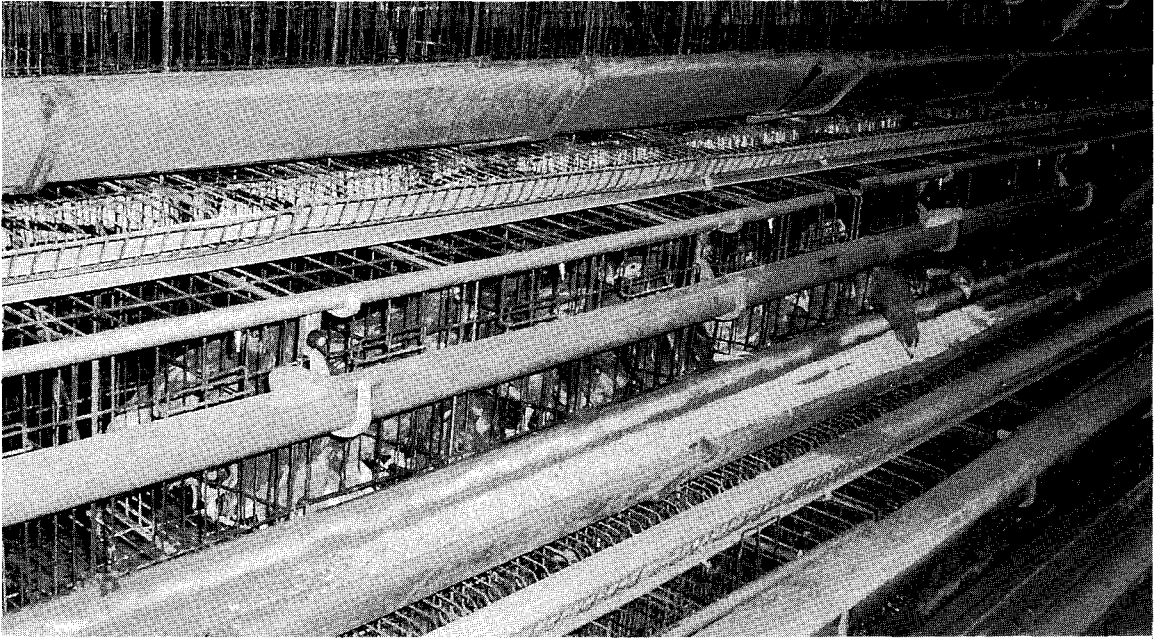
김형식 천안채관지부장에 의하면 이동제한에 묶어 있던 충남 지역은 4~5월사이 50만수 산란계 병아리와 중추가 입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시험사육 전에 완벽한 청소와 소독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은 깔끔하게 청소된 계사 내부)

3) 경기도

경기도 이천시는 안성시와 음성군의 접경지역이었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상태라서 농가발생과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기도 이천 읍면 산란계 농장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지역과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계분 차량도 같이 사용했던 곳이다.



▲ 입식사육에 사용될 50일령 산란계 중추

김달환 사장은 산란계 중추 50일령 20수를 시험사육하고 있다. 김달환 사장은 입식 준비를 위하여 모든 계사 내 모든 기기를 소독하고 청소하였다. 3동 청소 비용만 1,00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본격 입식이 막막한 상태이다. 3월째 생산이 중단되고 있고, 환우계가 350원으로 산정되어 사육비가 모자란 상태이다. 발생농장으로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출입구 소독조를 다시 설치하고 있다.

3. 점검 과제

1) 전문 방역 요원 확보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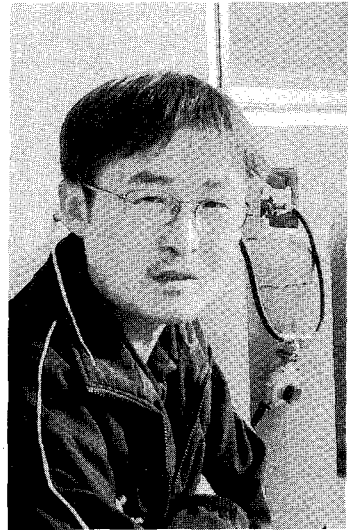
재입식을 위하여 시험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나 이를 감독하는 방역기관의 수의사들도 시험사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농가

들의 불만이 있었다. 물론 대가축 방역에 전념해온 수의사로서는 닭 분야까지 완벽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이다. 그러나 HPAI는 세계적인 발생으로 질병으로 국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닭 분야의 전문 방역 요원이 매년 꾸준히 확보되어야 한다. 한 수의사가 소, 돼지, 닭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한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2) 발생농가 방역시설 지원 검토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한번 발생한 농가가 당하는 피해는 엄청나다. 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함, 주위 농가들의 질책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 재입식을 위해 소독소를 설치하고 있는 김민환 사장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 기자가 취재한 한 농가는 3개월간 앞마을 조차 이동하지 못했고, 몇 주간 자녀들이 학교 가기도 포기하여 술과 담배로 건강 상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계사 소득을 위하여 몇 천만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가되는 지역이 있었다.

만약 산란계 농가에서 4만5천수(노계) 수당 350원에 살처분 보상비를 받는다면 1,500만원의 살처분 보상금과 1,000만원 생계지원비가 지원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농가는 12월부터 3개월 동안 소득원이 없고 소득하는데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방역시설을 하는데 200만원을 사용하고, 입식비 2,700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나 재입식을 하면 부채만 늘어나게 되어 업을 이어갈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재입식 농가는 방역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 시설이 있으면 별도의 자금을 신설하여 시설설치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어야 되며, 재입식 허가시 방역시설 설치 의무와 관리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 방안도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3) 성급한 재입식 없어야

오는 5월말이면 살처분 농가와 이동제한 되었던 산란계 농가들의 입식이 70%가 될 것이며, 8월이면 100% 수준에 임박할 것이라고 본다.

농가들은 병아리보다는 중추 입식 비율이 높아 계란생산이 안정세에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여 농가들은 재입식에 있어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필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소독 단계를 단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HPAI 특성상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재입식으로 수익보다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계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양계**